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를 감동시키는 《삼국사기》의 놀라운 힘 《삼국사기》에 숨겨진 정치적 코드

글 박현모(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왜 신라부터예요?” 《삼국사기》를 폈을 때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맨 처음 보인 반응이다. 단군의 이야기거나, 적어도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사극 <주몽>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 신화로 우리 역사가 시작된다는 게 의외라는 것이었다.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

《삼국사기》의 구성에 대한 의문은 내게도 늘 수수께끼였다. 물론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단군 이야기를 빼뜨린 것에 대해서 김부식의 사관, 즉 “괴이, 완력, 패란, 귀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 유교적 역사관이 지적되었다. (여기서 누락된[遺] 단군신화의 기이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기록되었다.)

그런데, 고구려가 아닌 신라를 정통으로 삼는 사관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었다. “공자의 《춘추》를 역사의 절대 기준으로 알고 그 의례(義例)를 흉내 내어 ... 민족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신채호의 비판이나, “가장 나중에 멸망한 것으로써 종주국을 삼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서거정의 지적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고대사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좋은 싫든 간에 이 책을 읽지 않고는 그 시대의 역사로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삼국사기》가 고려 인종의 지시에 따라 편찬된 정치서라는 점을 새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군주와 왕비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라 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 권하거나 징계”하기 위해 김부식은 11명의 편사관을 동원해 《구삼국사》와 《자치통감》 등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재구성했다. 따라서 《삼국사기》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이 책에 숨겨져 있는 김부식의 정치적 코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의 주공(周公)’ 김유신

“유교도(儒敎徒)의 영수!” 김부식의 유교사관을 지적하면서 신채호가 한 말이다. 신채호는 “공자 맹자의 학설인 인의(仁義)를 우습게 알았던 삼국의 무사(武士)들의 입에서 경전의 말들이 일상 쓰는 말처럼 읊어지고 전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나는 그 무사들의 입을 통해서 김부식이 말하고자 했던 생각이 오히려 궁금하다. 도대체 ‘유교사관’ 내지 ‘유교적 정치관’이란 무엇일까.

그 의문을 푸는 실마리는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김유신의 존재를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삼국사기》를 잘 읽어보면, 신라의 주인공은 박혁



《삼국사기》(전2권)

김부식 지음 | 이강래 옮김 | 한길사 | 1권 452쪽, 2권 948쪽

각권 값 22,000원



● 이 글을 쓴 박현모는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고, <정조의 성왕론과 경장정책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실록학교>에서 세종과 정조 등의 국왕리더십을 강의 중이다. <역사와 사회> 편집위원장을 지냈고,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치가 정조> <세종의 수성(守成)리더십> 등의 저서가 있다.

거제도 아니고, 태종무열왕 김춘추도 아니며, 김유신을 발탁해 중용한 선덕여왕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페이지가 할애되고 있는 김유신이야말로 신라 정치사의 주인공이며, 어찌 보면 '신라의 주공(周公)' 이 아닐까.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으면서도 군주(君主)인 성왕(成王)을 보필하여 주나라의 기틀을 닦은 군자(君子) 주공이야말로 유교 정치의 모델인 바, 김부식은 김유신을 신라의 주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공이 관속·채숙의 반란으로부터 국가를 구해냈던 것처럼, 김유신도 반역에서 신라를 구해냈다. 선덕여왕 재위16년(647년) 1월에 대신 비담과 염중은 “여왕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들은 명활성을 거점으로 삼아 월성의 왕족 세력을 공격했다. 그런데 반란군과 대치한 지 8일 만에 선덕여왕이 사망했다. 게다가 흉조라고 믿어지던 유성(流星)이 월성 쪽에 추락하자 반란군의 사기를 하늘을 치솟았다. 이와 반대로 왕실 측의 병사들은 크게 위축되었다.

국가위기 때 나타난 유교정치인의 언행

바로 이러한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김유신의 놀라운 정치력이 발휘된다. 맨 먼저, 그는 새로 즉위한 왕(신덕여왕)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길함과 흉함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은나라의 주(紂)왕은 봉황이 나타났지만 망했고, 정(鄭)나라는 용들이 서로 싸웠음에도 창성했습니다. 이로써 덕이 요망함으로 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자리의 변과 따위는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한마디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재이(災異) 따위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그는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김유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명한 심야의 ‘불꽃 연날리기’를 시행한다.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지난번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소문을 낸다. 심리전과 선전동술을 병행한 것이다.

김유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흰 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올리고 축문을 짓는다.

“하늘의 도리로 말하면 양은 군세고 음은 유약하며, 사람의 도리로 말하면 임금은 존귀하고 신하는 비천합니다. 이것이 뒤바뀐다면 진실로 큰 혼란이 일 것입니다. 지금 비담 등은 신하로서 임금을 모해하며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침범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하늘의 위엄으로써 사람의 행동거지에 따라 착한 이에겐 좋게 대하고, 악한 이를 미워하사, 신명의 부끄러움을 짓지 마소서”(《삼국사기》·김유신전·757~759).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김유신이 취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국왕을 비롯한 조정신료들을 안심시키는 일이었다. 옛날의 고사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별자리의 변과 따위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도록 설득했다.

둘째는 군사들과 일반들을 향한 정치적 쇼였다. 국왕과 조정신료들에게는 논리적인 근거로 설득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the visible)을 신봉하는 보통 사람들, 즉 아군과 적군에게는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듯”하게 해서 승리는 국왕의 편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이다.

세 번째의 제사와 축문은 아마도 김유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국왕과 조정신료, 그리고 군사와 백성들은 이리저리하게 설득하고 다독거릴 수도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기는 불안감은 어찌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행동에 뼈기를 박듯이 “하늘의 도리”와 “사람의 도리”로서 비담이 “난신적자”임을 규정한 다음, 하늘에 대해 다짐하듯 다그친다. 즉 “이제 하늘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 듯이 별의 궤변을 보이시니, 신은 심히 의혹스럽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 정말 김유신의 말일까 ‘의혹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설사 김유신의 입을 빌려 한 김부식 자신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재이(災異)를 바라보는 유교지식인의 관점과, 그것을 오히려 ‘재해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뛰어난 정치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를 감동시키는 《삼국사기》의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 **▶▶▶**